

中國 悼亡詩의 서술방식과 상징체계

朱 基 平*

<目 次>

I. 시작하며	IV. 悼亡詩의 상징체계
II. 悼亡詩의 성격과 역대 作詩 현황	1.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III. 悼亡詩의 서술방식	2. 亡者와 자신에 대한 상징
1. 일관된 悲嘆의 표출	3. 저승세계에 대한 표현
2. 遺品을 매개로 한 감정의 촉발	V. 맺으며
3. 幻影과 幻聽을 통한 悲痛의 극대화	

I. 시작하며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시대와 지역,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인간의 사상과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문학도 이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어서,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挽詩 또는 挽歌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엘레지 (Elegy)’ 라는 이름으로 죽음에 대해 노래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비탄과 슬픔, 허무와 아쉬움의 정서들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亡者와의 혈연적 관계나 親疎의 정도에 따라 시인의 반응 양상이나 슬픔의 강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는 곧 대상에 따른 각종 만가시의 서술방식이나 상징체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서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 중 현전하는 가장 최초의 작품은

* 서울대 중문과 강사

漢代의 민가인 <薤露>와 <蒿里>를 들 수 있다. 崔豹는 《古今注》에서 이 둘을 모두가 喪歌로서, <薤露>는 왕공 귀인이 죽었을 때, <蒿里>는 사대부와 서인이 죽었을 때 상여를 끄는 사람이 부르는 挽歌의 일종이라 말하였다.¹⁾ 그러나 이 작품들은 그 내용상, '죽음' 자체에 대한 허무감과 죽음의 보편성 및 불가역성 등에 대한 탄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정 개인에 대한 추모나 애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²⁾ 특정 개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그 보다 훨씬 후인 潘岳의 '悼亡詩'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公無渡河歌>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다름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고대의 자료들인 만큼 이 작품들이 구체적인 개인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작품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라는 현상을 가장 절실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이로 인한 슬픔 또한 가장 커다랄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족의 죽음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중국이나 부부가 그 첫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처럼 다른 어떤 죽음보다도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장 통절

1) '薤露><蒿里>, 泣喪歌也. 本出田橫門人, 橫自殺, 門人傷之, 爲作悲歌. 言人命奄忽, 如薤上之露, 易晞滅也. 亦謂人死魂魄歸於蒿里. 至漢武帝時, 李延年分爲二曲, <薤露>送王公貴人, <蒿里>送士大夫庶人. 使挽柩者歌之, 亦謂之挽歌.' 崔豹 《古今注》, 郭茂倩 《樂府詩集》 권27, <相和歌辭2>에서 인용.

2) <薤露> '薤上路, 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달래 잎의 이슬은 어찌 이리도 쉽사리 마르나. 이슬은 마르면 내일 아침 또 다시 내리는데, 사람 죽어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蒿里> '蒿里誰家地, 聚斂魂魄無賢愚. 鬼伯一何相催促, 人命不得少踟躕(호리는 누가 사는 곳이던가? 혼백을 거둬감에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리지 않는다네. 저승사자 어찌 저리도 재촉하는가? 사람 목숨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구나) 郭茂倩 앞의 책.

3)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그 대상이 부모인가 배우자인가 혹은 자녀인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자녀가 대상인 경우의 슬픔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의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정은리, <Mediators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 Adults(노년기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매개변수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7집, 1995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亡者인 배우자를 애도하는 '悼亡詩'는 潘岳 이래 주된 挽歌詩의 제재가 되어왔으며, 오랜 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그 대상과 슬픔의 정도 차로 인해 비감의 표출이나 애도의 방식 및 시적 상징 또한 다른 亡者들을 대상으로 한 여타의 挽歌詩와는 다른 경향성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挽歌詩 중 悼亡詩의 일반적인 서술방식과 상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다른 만가시에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게 된 원인과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작자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찍이 최재남은 <韓國 哀悼詩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⁴⁾에서 한국의 애도시를 悼亡詩와 哭子詩, 哭兄弟詩, 悼朋詩로 분류하고 이들의 구성요소와 관습적 표현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사이에서의 구별된 경향성을 찾으려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들이 다른 외국문학, 특히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의 문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고찰은 다만 中國 悼亡詩의 성격구명에만 그 의미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자문화권 속에서의 유형성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며, 나아가 우리 한시와 중국 한시와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우리 한시의 상대적인 독립성과 독창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 悼亡詩의 성격과 역대 作詩 현황

哀悼詩라고도 칭할 수 있는 挽歌詩는 그 대상에 따라 悼亡詩, 哭子詩, 哭兄弟詩, 悼朋詩 그리고 그 외 悼王詩, 悼師詩 등 많은 부류로 나누어진 다. 그러나 가족이나 형제 등을 애도하는 挽詩들과는 달리 다른 挽詩들은 亡者의 사회적 지위나 자손들의 청탁 등으로 인해 의례적으로 지어지고

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2.8, 이하 《연구》.

헌사되어 亡者의 문집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에서 창작되어야 할 挽詩가 남의 요청에 의해 쓰여지는 應副文字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⁵⁾ 이러한 작품들 속에는 亡者에 대한 작자의 진솔한 감정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표현방식 또한 망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슬픔의 나열과 의례적인 칭송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작자의 감정은 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글 속에서 가장 진솔하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사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곧 가족의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비탄의 감정으로 인해 작자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정지되고 결과적으로 작품에 대한 작자의 의식적인 조탁이나 인위적인 배치 등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비탄의 극한에 위치하는 悼亡詩에서는 감정의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경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까닭에 悼亡詩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상의 전개나 서술방식에 있어 다른 어떤 유형의 만가시들보다도 상호간의 많은 유사성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挽歌詩의 한 유형으로서의 悼亡詩는 본래는 자신과 절친한 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潘岳이 <悼亡詩>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이래, 주로 아내와의 사별로 인한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는 양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⁶⁾ 물론 후대에도 溫庭筠이 <和友人悼亡>⁷⁾에서 친한 歌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나타내었고, 白居易 또한 <爲薛台悼亡>⁸⁾에서 知人을 애도의 대상으로 하는 등 悼亡의 의미를 반드시

5) 挽詩의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안대희의 <韓國漢詩와 죽음의 문제>, 《韓國漢詩研究 3》(서울: 태학사, 1995), p51-53에 잘 설명되어 있다. ,

6) 이외는 반대로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한 있기는 하지만, ‘悼亡’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 중에는 祁彪를 애도한 明末 商景蘭의 《悼亡》 1수가 유일하다.

7) ‘玉貌潘郎淚滿衣, 畫羅輕鬢雨兩霏微 紅蘭委露愁難盡 白馬朝天望不歸 寶鏡塵昏鸞影在, 鈿箏弦斷雁行稀 春來多少傷心事(一作春風幾許傷心事), 碧草侵階粉蝶飛’

8) ‘半死梧桐老病身, 重泉一念一傷神 手攜揮自夜歸院 月冷空房不見人

아내로만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이 중 아내를 대상으로 한 시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역대의 詩歌들을 살펴보면, ‘悼亡’에서 느껴지는 비탄의 강도에 비해 실제 작품을 통해 ‘悼亡’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제목을 통해 직접 ‘悼亡’이라 명명하고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애도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은 더욱 드물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唐代 이전시기까지의 시 중 <悼亡>을 詩題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은 潘岳의 <悼亡> 3수와 沈約의 <悼亡> 1수가 전부인데, 이 중 沈約의 시는 原題가 <悼往>으로서 《玉臺新詠》에는 ‘一作悼亡’으로 소개되어 있으나,⁹⁾ 엄밀히 말하면 당대 이전의 시 중 <悼亡>이라는 제명의 시는 潘岳의 작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이후의 상황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상당 때까지의 시인들 중 제목을 통해 ‘悼亡’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중당 이후 李商隱, 孟郊, 白居易, 元稹 등 몇몇 시인들에게서만 한두 수에 걸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이들 중 특히 元稹의 경우는 반약과 더불어 도망시의 주요한 작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또한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悼亡’을 언급하고 있는 작품은 <夜閑此後并悼亡>이 유일하며, <遣悲懷> 또는 <六年後遣懷>라는 우회적인 제목을 사용하거나 <答友封見贈>¹¹⁾에서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망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애정시인인 이상은 또한 ‘悼亡’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100편이 넘는 애정시 중 다만 서너 수에 불과하며¹²⁾ 이 또한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悼傷後赴東

9) 《玉臺新詠》 권5, <沈約>

10) 李商隱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孟郊 <悼亡>, 白居易 <爲薛台悼亡>, <見元九悼亡詩因以此寄>, 魚玄機 <和新及第悼亡詩二首>, <代人悼亡>, 溫庭筠 <和友人悼亡一作喪歌姬>, 元稹 <夜閑此後并悼亡>, 韋莊 <悼亡姬> 등

11) ‘荀令香銷潘篋空 悼亡詩滿舊屏風 扶床小女君先識 應爲些些似外翁’ 《全唐詩》 권404, <元稹>

12) 이상은의 애정시는 그 개인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시적 대상이 분명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지운은 《李商隱 愛情詩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2005.2, p49)에서 이상은의 애정시를 총 134수로 구분하고 이 중 대상이 분

蜀辟至散關遇雪>과 <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見招小飲時余以悼亡日近不去因寄> 두 수뿐이다. 송대에 들어와서는 매요신이 40여수에 달하는 도망시를 써냄으로써 歷代 最多 도망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지만,¹³⁾ 이는 다만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 도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시대의 蘇軾의 경우, 2,400여수에 달하는 시 속에서 悼亡詩는 단 한 수도 없으며 다만 詞에서만 <江城子> 한 수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다 작가인 남송의 陸游 또한 일 만수에 달하는 시 중 ‘悼亡’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한 수도 없으며, 다만 먼저 세상을 떠난 前 부인을 회상하는 5수의 시만이 남아 있을 뿐인데, 이마저도 ‘悼亡’의 정서와 가까운 작품은 <沈園> 2수가 유일하다.¹⁴⁾ 이어 원대에 傅若金の <悼亡>이 쓰여지고 이후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王士禎의 <悼亡詩> 6首, 陳祖范의 <悼亡> 2首, 蒲松齡의 <悼內> 3수, 顧炎武의 <悼亡> 5수 등 비록 이전보다는 많은 작자와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明清代의 전체 작자와 작품 수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망시에 대한 인식이나 창작 상황이 전시기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도망시는 그 감정의 강도와 깊이에도 불구하고 역대 시인들의 작품세계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재로만 한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봉건적인 男女觀에 기초한 이른바 ‘大男子主義’의 전통을 들 수 있다. 슬픔과 눈물, 비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아내에 대한 도망시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중국 사회에서 금기

명한 애정시는 대략 20수 가량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들 중 <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見招小飲時余以悼亡日近不去因寄>와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正月崇讓宅> 등을 아내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13) 문명숙, 《中國詩와 詩人》(宋代編), <매요신>, p245-246

14) 拙稿, 《陸游詩歌研究》(서울대 박사논문, 2005.2), p270

시 될 수밖에 없었으며, 적어도 드러내어 놓고 노래할만한 성격 또한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성 우월주의가 문학 방면에 끼친 영향들은 다만 시나 산문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양식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니, 상상과 관념이 위주가 되는 신화와 지괴 같은 초기의 문학적 소재에서도 쉽게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¹⁵⁾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하지만 도망시가 中唐 이후부터서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시인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唐代는 현실에 대해 솔직하고자 하는 문인 계층의 변화된 의식으로 인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담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였다.¹⁶⁾ 특히 중당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安史의 난의 평정과 사회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에 있어 애정시가 크게 흥성하게 되었다.¹⁷⁾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인들로 하여금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애정표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망시의 창작에 대해서도 유리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悼亡詩의 서술방식

앞서 언급했듯이 悼亡詩는 그 성격상 가장 극한적인 비탄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까닭에 작자의 무의식적인 반응과 본능적인 경향이 보다 두

- 15) 《幽明錄》과 《續搜神記》 등에는 죽은 남편이 나타나 이승의 부인과 동침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남편이 죽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의 관념 속에서 아내 귀신에게는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이승에 나타나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자격은 남편 귀신에게만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지현,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서울대 박사논문, 2004. 8), p108-111
- 16)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 p455-456
- 17) 이지운, 앞의 논문, p30-31

드러지게 되며 그 결과 시상의 전개나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도 작품 상호 간의 많은 유사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悼亡詩의 서술방식상의 특징을 크게 ‘일관된 悲嘆의 표출’, ‘遺品을 매개로 한 감정의 촉발’, ‘幻影과 幻聽을 통한 悲痛의 극대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일관된 悲嘆의 표출

《연구》에서는 애도시의 구성요소로 悲嘆, 鎮魂, 稱揚의 세 층위를 설정하고 이 중 한국의 悼亡詩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요소로 비탄을 꼽고 있다.¹⁸⁾ 그러나 하나의 작품 속에서 이 세 요소 중 전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비탄과 진혼, 혹은 비탄과 칭양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비탄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또한 애도의 대상 및 애도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며 가까운 피붙이의 죽음에 대한 悼亡詩, 哭子詩, 哭兄弟詩에서는 통절한 비탄이 우세하게 드러나고, 사회적 교우에 의한 벗과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애도인 悼朋詩에서는 비탄이 관습화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칭양이 우세함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⁰⁾ 이러한 경향성은 중국의 悼亡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悲嘆으로 일관하고 있는 작품 속에서도 亡者를 위안하고 달래는 鎮魂과 亡者의 생애와 인품을 높이는 稱揚의 요소가 종종 혼재되어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다수의 작품들은 이 같은 요소의 혼재보다는 일관된 비탄의

18)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층위’라는 용어는, 필자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하의 개념, 즉 층차의 개념을 의미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구성요소들 간에는 어떠한 상하 층차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마땅히 ‘축(軸)’-각각의 독립된 의미로서-이나 혹은 쉽게 의미 그 자체로 ‘구성요소’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옳바를 듯하다.

19) 《연구》, p28

20) 《연구》, p38.

표출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서 최초의 悼亡詩인 潘岳의 작품을 보도록 한다.

*悼亡詩 其一²¹⁾

荏苒冬春謝,	세월은 덧없이 흘러 한 해가 지나가고,
寒暑忽流易.	추위와 더위도 홀연히 변하였소
之子歸窮泉,	당신은 황천으로 떠나버리고,
重壤永幽隔.	겹겹의 흙은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는구려.
私懷誰剋從,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나의 생각을 이제 누가 들어줄 수 있으며,
淹留亦何益.	벼슬살이 않고 집안에 머문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僛俛恭朝命,	에써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回心反初役.	마음을 돌려 예전의 관직으로 돌아가야 하리다.
望廬思其人,	초막을 바라보니 당신이 생각나고,
入室想所歷.	방에 들어가니 우리 함께 하였던 지난 일들이 떠오르는구려.
幃屏無髣髴,	휘장과 병풍에서도 당신과 비슷한 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翰墨有餘迹.	살아생전에 지었던 시문에는 당신의 남은 흔적이 있다오
流芳未及歇,	당신의 체취는 아직도 곳곳에 배어 사라지지 않았으며,
遺挂猶在壁.	즐거 사용하였던 물건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구려.
悵恍如或存,	이 물건들 보노라니 아련하여 당신이 있는 듯한데,
周惶忡驚惕.	이젠 그대 없으니 마음만 놀랍고 아프고 두렵기만 하구려.
如彼翰林鳥,	저 숲에 깃들어 사는 새처럼
雙飛一朝隻.	함께 날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었으며,
如彼游川魚,	저 강에 노니는 고기처럼
比目中路析.	항상 더불어 다녔는데 중도에서 헤어지다니.....
春風緣隙來,	봄바람은 문 틈새를 따라 불어오고,
晨靄承檐滴.	새벽의 낙숫물은 처마를 따라 듣는구나.
寢息何時忘,	자다가도 쉬다가도 어느 때나 잊을 수 있으랴.
沈憂日盈積.	깊은 근심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구나.
庶幾有時衰,	바라건대 언제나 내 마음 찾아져서,

21) 《文選》 권23, <哀傷>

莊缶猶可擊. 부인을 잃고서도 북 두드렸던 莊子처럼 초연할 수 있으리.

其二

皎皎窓中月, 맑게 창으로 비치는 달빛은
照我室南端. 우리 집 남쪽 문을 비추며
清商應秋至, 서녘 바람은 가을에 때맞추어 불어오고,
溽暑隨節闋. 무더위는 계절이 바뀔에 따라 찾아들고 있구려.
凜凜涼風升, 싸늘히 차가운 바람 일어나니,
始覺夏衾單. 비로소 여름 이불이 얇음을 알겠시오.
豈曰無重纈, 어찌 두터운 솜이불이 없겠소마는
誰與同歲寒. 누구와 더불어 이 추운 겨울을 지낸단 말이오.
歲寒無與同, 이 추운 겨울 함께 할 이 없는 데,
朗月何朧朧. 밝은 저 달은 왜 저리도 밝은 것인지....
輾轉眇枕席, 잠을 못 이루어 뒤척이다 당신의 잠자리를 바라보니,
長簟竟牀空. 긴 대자리 놓인 침상은 헛하기만 하구려.
牀空委清塵, 비어 있는 당신의 잠자리에는 가벼운 먼지만 쌓이고,
室虛來悲風. 허전한 이 집에 늦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獨李氏靈, 왜 당신만은 漢武帝의 이씨 부인 같은 영혼이 없는 것이오.
髣髴觀爾容. 어렴풋이나마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
撫衿長歎息, 소매를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니,
不覺淚沾胸.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서 가슴을 적신 다오.
沾胸安寧已,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한들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으리.
悲懷從中起. 슬픈 심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네.
寢與自存形, 자다가 깨어나서 혼자 생각하니 당신이 있는 듯하고,
遺音猶在耳. 생전에 나누었던 말들이 여전히 귓전에서 울린 다오.
上慙東門吳, 위로는 아들의 죽음에 초연했던 東門吳에 부끄럽고,
下愧蒙莊子. 아래로는 아내의 죽음에 초연했던 蒙人 莊子에게 부끄럽구려.
賦詩欲言志, 시를 지어서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하고자 하나,
此志難具紀. 이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기만 하오.
命也可奈何, 사람의 운명이야 어찌 할 수 있으리!
長戚自令鄙. 오랫동안 시름에 빠져 지내니 스스로 부끄러움이 드는구려.

其三

曜靈運天機, 해는 하늘을 운행하고,
 四節代遷逝. 사계절은 번갈아 바뀌어 지나간 다오.
 淒淒朝露凝, 달씨가 싸늘하여 아침이슬은 얼어붙고,
 列列夕風厲. 추위가 심하니 저녁에 부는 바람은 매섭구려.
 奈何悼淑儷, 어떻게 당신의 죽음을 슬퍼할까?
 儀容永潛翳. 이제 당신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는데....
 念此如昨日, 당신을 생각하니 어제 일만 같은 데,
 誰知已卒歲. 누가 알았겠소.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을 줄을
 改服從朝政, 상복을 벗어 갈아입고 조정의 정령을 따르고,
 哀心寄私制. 슬픈 마음은 내가 당신에게 치르는 예에 부치리다.
 茵轉張故房, 깔개와 휘장을 옛 방에 펼쳐 두고,
 朔望臨爾祭. 초하루와 보름에 당신의 제사를 치리리다.
 爾祭詎幾時, 당신의 제사가 몇 번이나 될 것인지,
 朔望忽復盡. 한 달은 훌연히 또 가 버렸으니.
 衾裳一毀撤, 당신의 이불과 옷가지들을 일단 한 번 치워 없애 버리면
 千戴不復引. 영원히 다시는 놓을 수 없을 텐데.
 塵壒暮月周, 시간은 흘러 어느 덧 일 년이 지나갔고,
 戚戚彌想愆. 근심은 점점 생각에 미쳐 마음 아프다오.
 悲懷感物來, 슬픈 느낌이 당신의 물건을 대하자 솟아나와,
 泣涕應情隕. 눈물이 내 마음을 따라 떨어지는 구려.
 駕言陟東阜, 수레를 타고 묘가 있는 동쪽 언덕에 가서,
 望墳思紆軫. 무덤 바라보며 당신 생각하니 생각이 멎혀 슬프기 그지없소.
 徘徊墟墓間, 무덤 주위를 배회하다가,
 欲去復不忍. 가려하여도 차마 떠날 수 없구려.
 徘徊不忍去, 서성이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徙倚步踟躕. 배회하면서 머뭇거리고만 있다오
 落葉委埏側, 낙엽은 당신 무덤의 墓道 가장자리에 쌓이고,
 枯蔓帶墳隅. 마른 나무뿌리는 무덤 귀퉁이에 걸쳐 있구려.
 孤魂獨熒熒, 죽어 당신의 영혼만 홀로 외로이 있으니,
 安知靈與無. 당신의 영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으리.
 投心遵朝命, 당신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접어 두고 조정의 명을 좇아,
 揮涕強就車. 눈물을 뿌리며 애써 수레로 간다오.

誰謂帝宮遠, 아! 누가 황제가 있는 성이 멀다 하였을까,
路極悲有餘. 길은 다하였는데 슬픔은 여전한 것을.

潘岳의 위 세 수의 시는 悼亡詩에서의 비탄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 구에 걸쳐 의도적인 치장이나 의례적인 칭양 없이 작자의 절박한 슬픔이 중심을 이루면서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내면적 고통을 직서적인 언어로 표출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수의 경우, 用韻에 있어 전반부에서는 입성의 '陌'韻을 사용하고 후반부에서도 입성의 '錫'韻을 사용함으로써 작자의 숨이 막히고 목이 메이는 슬픔을 보다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관된 비탄의 표출은 전체 悼亡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많은 시들이 이 시에서와 같이 눈물이나 탄식, 절규 등의 어휘들을 상용함으로써 비탄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역대 도망시 중 두 번째로 쓰여진 沈約의 도망시에서도 일관된 비탄의 표출이 나타난다.

*悼往 (一作悼亡)²²⁾

去秋三五月,	작년 가을 8월의 보름달은
今秋還照梁.	올 가을에도 여전히 집을 비추고
今春蘭蕙草,	올 봄의 난초와 혜초는
來春復吐芳.	내년 봄에도 다시금 향기를 토해내리.
悲哉人道異,	서글프도다. 인간의 도의 이와 다름이여.
一謝永銷亡.	한 번 시들어지면 영원토록 녹아 없어져버리네.
簾屏既段撤,	주렴과 병풍은 이미 치워져버렸고
帷席更施張.	휘장과 자리가 다시금 펼쳐져 있네.
遊塵掩虛座,	떠다니는 먼지는 텅 빈 자리에 쌓여 있고
孤帳覆空床.	외로운 휘장은 텅 빈 침대를 가리고 있네.
萬事無不盡,	인간사 모든 일 다함이 없을 수 없으니
徒令存者傷.	그저 남아 있는 사람만 가슴 아프게 할 뿐.

22) 《玉臺新詠》 권5, <沈約>

시는 6구를 기준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 첫 4구까지에서 작자는 영속하며 반복되는 자연현상들을 이야기하며 다음 2구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후반 4구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먼저 떠나간 아내의 흔적마저도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과 주인 잃은 사물의 황량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마지막 2구에서의 살아있음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작자의 비탄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음에서 孟郊의 悼亡詩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悼亡²³⁾

山頭明月夜增輝,	산꼭대기의 밝은 달, 밤이 되어 빛을 더하건만
增輝不照重泉下,	더해진 빛이라도 땅 속까지 비추지는 못하네.
泉下雙龍無再期,	땅 속의 쌍룡은 다시 만날 기약 없고
金蚕玉燕空銷化,	금 빛 지렁이와 옥 빛 제비는 헛되이 없어져가네.
朝雲暮雨成古墟,	아침 구름과 저녁 비는 옛 터에서 만나건만
蕭蕭野竹風吹亞.	쓸쓸한 들 가 대나무에는 바람만이 불어대네.

이 외 韋莊의 <悼亡姬>²⁴⁾나 <獨吟>²⁵⁾, 元稹의 <夜閑此后并悼亡>²⁶⁾ 또한 일관된 비탄이 표출된 경우들이며, 이상은의 <房中曲>이나 <正月崇讓宅> 또한 동일한 서술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은의 시는 뒤의 다른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몇몇 작품들에서는 전체적으로 비탄의 정서가 주를 이루면서도 《언구》에서의 지적과 같이 稱揚이나 鎮魂의 면들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다음에서 元稹과 梅堯臣의 시를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3) 《全唐詩》 권540, <孟郊>

24) ‘鳳去鸞歸不可尋，十洲仙路彩云深。若無少女花應老，爲有姬娥月易沈。竹葉豈能消積恨，丁香空解結同心。湘江水闊蒼梧遠，何處相思弄舜琴’ 韋莊，<悼亡姬>

25) ‘默默無言惻惻悲，閑吟獨傍菊花籬。只今已作經年別，此后如爲幾歲期。開篋每尋遺念物，倚樓空綴悼亡詩。夜來孤枕空腸斷，窗月斜輝夢覺時’ 韋莊，<獨吟>

26) ‘感極都無夢，魂銷轉易驚。風簾半鉤落，秋月滿床明。悵望臨階坐，沈吟繞樹行。孤琴在幽匣，時迸斷絃聲’ 元稹，<夜閑此后并悼亡>

먼저 元稹의 <遣悲懷>를 보면 총 3수의 작품 중 前 2수가 비탄의 정서에 망자에 대한 稱揚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遣悲懷」其一 27)

謝公最小偏憐女,	謝安의 가장 어리고 사랑 받던 딸과 같았던 그대,
自嫁黔婁百事乖.	黔婁와 같은 내게 시집은 뒤론 모든 게 어긋나 버렸네.
願我無衣搜蠹篋,	내 입을 옷 없음을 보고선 께에서 옷 꺼내 주었고
泥他沽酒拔金釵.	내게 술 사오라며 금비녀를 빼 주었네.
野蔬充膳甘長藿,	채소로 배 채우고 콩잎도 달게 여기고
落葉添薪仰古槐.	낙엽으로 땀감 삼고자 늙은 나무 올려보곤 했었네.
今日俸錢過十萬,	이제 비록 급료 십만 금이 넘으나 (그대는 이미 없으니)
與君營奠復營齋.	그대에게 음식 차리고 제사지내기만 한다네.

「遣悲懷」其二

昔日戲言身後事,	옛날에 장난삼아 사후의 일을 이야기했건만
今朝都到眼前來.	오늘날 눈앞의 일이 되어버렸네.
衣裳已施行看盡,	옷가지들 이미 다 주어버려 남아있는 것 없고
針線猶存未忍開.	그대의 이부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건만 차마 퍼지를 못하겠네.
尚想舊情憐婢僕,	항상 노복들을 사랑했던 그대의 옛 정을 생각하다가
也曾因夢送錢財.	일찍이 꿈에 그댈 만나 재물 전해 주었었네.
誠知此恨人人有,	진정 이러한 恨, 사람마다 모두 있음을 알건만,
貧賤夫妻百事哀.	평생 가난하기만 했던 차이였기에 일마다 슬프기만 할 따름이네.

稱揚은 亡者의 지난 삶에 초점을 두고 그의 행적과 품성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悼亡詩에서는 鎮魂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칭양의 내용은 亡者와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悼亡詩에서의 칭양은 형제나 벗에 대한 애도시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주로

27) 《全唐詩》 권404, <元稹>

亡者의 糟糠之妻적인 측면, 즉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집안을 잘 꾸려나가고 원만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元稹의 위 두 수만 하더라도 처녀 적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 자신과 혼인한 이후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살림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돈독한 내조와 노복들에 대한 따스한 정을 잃지 않았던 아내의 품성에 대한 칭양이 위주가 되고 있다.

元稹의 <遣悲懷> 其三에서는 앞서와는 달리 鎮魂의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遣悲懷 三首(其三)²⁸⁾

閑坐悲君亦自悲,	한가로이 앉아 그대를 슬퍼하고 내 자신을 슬퍼하니
百年多是幾多時.	백년 세월 길긴 하다만 얼마나 긴 시간인고
鄧攸無子尋知命,	鄧攸는 자식이 없음에 자신의 운명임을 알았고
潘岳悼亡猶費詞.	潘岳은 처가 죽으매 부질없이 말만 낭비하였네.
同穴窅冥何所望,	한 구덩이에 묻히는 것 이미 멀어졌으니 이제 무슨
	바램이 있겠으며
他生緣會更難期.	다른 생에 다시 만나는 것조차 더욱 기약하기 어렵네.
惟將終夜長開眼,	다만 밤새도록 오래 눈 뜨고서
報答平生未展眉.	평생토록 얼굴 한 번 펴지 못했던 그대에 보답코자 하네.

鎮魂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대상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亡者의 넋을 위로함으로써 실제로는 애도자가 슬픔을 덜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은 뒤의 장례 절차에서도 죽은 이를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마련하고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는 행위들도 모두가 이 진혼과 관련된 행위들인 것이다.

이 시는 전편에 걸쳐 아내의 죽음에 대한 비탄이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尾聯에서 亡者에 대한 진혼의 뜻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수련

28) 《全唐詩》 권404, <元稹>

에서 작자는 앞서 沈約의 <悼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수명의 유한함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함련에서는 자식을 얻지 못했던 鄧攸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잃었던 반약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슬픔을 이들의 슬픔과 동일화시키고 있으며, 경련에서는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지승에서의 재회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슬픔의 강도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평생을 가난하게만 살다가 환하게 얼굴 한 번 펴보지 못한 아내에 보답하고자 작자 또한 밤새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작자는 죽은 아내를 위안하면서 동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신에 대한 위안도 함께 하고 있다.

다음에서 梅堯臣의 시를 보기로 한다.

*悼亡 三首²⁹⁾

結髮爲夫婦，	머리 묶어 부부 된지
于今十七年。	어언 십칠 년.
相看猶不足，	보고 있어도 외려 족하지 않을진대
何況是長捐。	하물며 이렇게 영원히 헤어짐에라.
我鬢已多白，	내 귀밑머리 이미 백발이건만
此身寧久全。	이 몸만은 편안히 오래도록 살아있네.
終當與同穴，	마땅히 함께 무덤 속에 있어야 하거늘
未死淚漣漣。	죽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

每出身如夢，	매번 나가건만 몸은 꿈속에 있는 듯，
逢人強意多。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지못해서라네.
歸來仍寂寞，	돌아와 들어서면 적막함은 더해만 가니
欲語向誰何。	말하려 해도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리.
窗冷孤螢入，	차가운 창에 외로운 반딧불 날아들고
宵長一雁過。	기나긴 밤 한 마리 기러기 지나가네.
世間無最苦，	세상에서 이보다 괴로운 것 없나니
精爽此銷磨。	혼백마저도 녹아내리네.

29) 《宛陵先生文集》 권14

從來有修短, 어차피 삶이야 길고 짧음이 있는 것이니
 豈敢問蒼天. 어찌 하늘에 따져 묻겠는가마는
 見盡人間婦, 인간 세상의 여인네들 모두 돌아보아도
 無如美且賢. 그대만큼 아름답고 어진 이는 없구려.
 譬令愚者壽, 어리석은 이의 수명이었다 한다면
 何不假其年. 어찌 그 생을 좀 더 얻을 수 없었으리.
 忍此連城寶, 차마 건딜 수 없네. 和氏의 구슬과도 같은 그대
 沉埋向九泉. 묻히어 구천을 향하는 것을.

이 시는 총 세 수 중 前 두 수가 일관된 비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 수에서는 아내에 대한 칭양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칭양의 내용은 앞서 元稹의 <遣悲懷>에서와는 사뭇 다르다. <遣悲懷>에서의 칭양이 亡者의 糟糠之妻적인 측면에 대한 것임에 비해 이 시에서는 亡者의 ‘외모’와 ‘품덕’에 대한 칭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마지막의 ‘連城寶’의 비유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 주된 초점은 망자의 외모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에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도망시에서는 비탄의 정서와 더불어 망자에 대한 稱揚과 鎮魂의 측면들이 함께 나타나곤 하지만, 이보다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일관된 비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는 앞서 만가시의 특성에 살펴본 것처럼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극한의 감정’이 悼亡詩 창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 遺品을 매개로 한 감정의 촉발

일반적인 만가시에서와는 달리 悼亡詩에서의 비탄의 정서는 많은 경우 亡者의 遺品을 매개로 하여 촉발되곤 한다. 즉 슬픔이라는 유사한 감정이 보통의 만가시에서는 주로 계절적인 요인이나 자연 사물의 변화에 의해 촉발되는 데 비해, 도망시에서는 아내와 관련된 사물이나 유품, 즉 휘장, 병풍, 이불, 베개, 침대를 비롯하여 화장품, 비녀 등이 주된 촉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³⁰⁾ 물론 悼亡詩에서도 계절이나 자연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한 슬픔의 촉발들이 없는 것은 아니며 도입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이것들로 인해 시작이 되곤 한다. 그러나 유품을 매개로 한 감정의 촉발은 도망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서 살펴본 潘岳과 沈約 元稹 등 모든 시인들의 도망시에서 쉽게 발견되어진다.

潘岳의 시에서는 全詩에 걸쳐 휘장[幃]과 병풍[屏], 필기구[翰墨], 여름 이불[夏衾], 베개[枕席], 침대[牀], 이부자리와 옷가지[衾裳], 유물[遺] 등이 등장하며 작자의 슬픔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촉발은 다만 유형의 유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취[流芳]라는 무형의 유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沈約의 시 또한 주렴[簾], 병풍[屏], 빈 자리[虛座], 빈 침대[空床]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진 또한 옷가지[衣裳], 이불[針線]을 통해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고 슬픔에 빠져들고 있다.

다음의 이상은의 작품 또한 이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房中曲³¹⁾

薔薇泣幽素,	장미는 이슬에 흐느끼는데,
翠帶花錢小.	푸른 띠에 동전 같이 작은 꽃.
嬌郎癡若雲,	그대가 사랑하는 님 구름처럼 멍하여,
抱日西簾曉.	해를 안고 있자니 서편 주렴으로 날 밝아온다.
枕是龍宮石,	베개는 용궁의 보석이라,
割得秋波色.	가을 물결 같은 색을 가른 듯 하다.
玉簫失柔膚,	대 침상에 누운 부드러운 몸은 간 곳 없고

30) 歸陶潛 <挽歌詩>를 보면 주된 슬픔의 정서가 ‘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황량한 풀 어찌 저리 아득한가, 백양나무 또한 스산하네),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말은 하늘을 향해 울어대고, 바람 절로 쓸쓸히 부는데)와 같이 자연사물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앞서 예를 든 <薔露>의 경우에서도 ‘薔上路, 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가시인 <祭亡妹歌> 또한 ‘잎 떨어지는 가을’이라는 배경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31) 劉學鍇, 余恕誠 편, 《李商隱詩歌集解》(북경: 중화서국, 1988), p1034. (이하 李商隱의 悼亡詩는 이지운, 앞의 논문, <부록>의 해석과 주석을 재인용)

但見□羅碧. 다만 펼쳐진 푸른 비단 이불만 보인다.
 憶得前年春, 지난 봄
 未語含悲辛. 말없이 상심에 젖었던 그대가 떠오른다.
 歸來已不見, 돌아와 보니 이미 보이지 않고
 琴瑟長於人. 금슬만이 그대보다 오래 가는구려.
 今日澗底松, 오늘은 계곡 밑의 소나무지만,
 明日山頭藥. 내일은 산꼭대기 그루터기 되리니
 愁到天地翻, 천지가 뒤집어져서
 相看不相識. 서로 다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스럽소

전체적으로 일관된 비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 또한 앞서의 다른 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베개[枕]와 대 침상[玉簟], 푸른 비단 이불[羅碧], 금슬[錦瑟] 등의 유품들이 슬픔의 주된 촉발체가 되고 있다.

도망시에서 아내의 유품들은 다만 비탄의 감정만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은 이 상의의 또 다른 도망시로서 ‘鴛機’를 매개로 아내를 떠올리게 되고 그로 인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悼傷後赴東蜀辭至散關遇雪³²⁾

劍外從軍遠, 劍閣 밖으로 군대 따르는 길 먼데,
 無家與寄衣. 옷 부쳐 줄 집사람 없다.
 散關三尺雪, 삼 척이나 쌓인 눈 속의 산관에서
 迴夢舊鴛機. 아내의 옛 수놓는 기구 꿈꾼다.

3. 幻影과 幻聽을 통한 悲痛의 극대화

환상과 환청의 방식을 통해 가상적 재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悲痛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한 도망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술기법이다.

32) 劉學錯, 余恕誠 편, 앞의 책, p1115

먼저 이상은의 시를 보기로 한다.

*正月崇讓宅³³⁾

密鎖重關掩綠苔,	문 굳게 걸어 잠겨있고 푸른 이끼 덮여있는데
廊深閣迥此徘徊。	회랑 깊고 누각 멀어서 예서 배회한다.
先知風起月含暈,	바람이 일 것을 먼저 알아 달은 무리를 짓고
尙自露寒花未開。	이슬 차가워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蠅拂簾旌終展轉,	주렴 끝 친 흔드는 박쥐 소리에 끝내 뒤척이고
鼠翻窓網小驚猜。	窓紗 들썩이는 쥐 소리에 자못 놀라 의심하였다.
背燈獨共餘香語,	등불 등지고 혼자서 남겨진 향기와 이야기하다가
不覺猶歌起夜來。	나도 모르게 <기야래>를 불러보았다.

이 시는 작자가 아내와의 사별 후 처가에 돌아와 지은 작품으로 외로움에서 기인한 비탄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수련에서는 적막하고 황량한 처가의 모습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자신의 방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함련과 경련에서는 교차서술의 방식으로 수련에서의 황량함과 외로움의 정서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즉 함련은 수련의 두 번째 구를 이어받아 무리진 달과 피지 못한 꽃을 묘사함으로써 작자의 외로움을 상징을 통해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련은 다시 수련의 첫 번째 구를 이어받아 주렴과 사창에까지 침입하는 박쥐와 쥐를 묘사함으로써 처가의 황량한 느낌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소리를 인기적으로 착각함으로써 미련에서는 환상 속의 아내와 재회를 하고 있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蘇軾의 悼亡詞인 <江城子>에서도 환영의 방식을 통한 비통의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다.

江城子 - 乙卯正月二十日夜記夢³⁴⁾

十年生死兩茫茫. 죽어 헤어져 십 년, 둘 사이는 아득한데

33) 劉學鐸, 余恕誠 편, 앞의 책, p1354

34) 《蘇軾詩集》(북경: 중화서국, 1996. 11)

不思量 생각지 않으려 해도
 自難忘 잊기가 어렵구려.
 千里孤墳,
 無處話淒涼.
 縱使相逢應不識,
 塵滿面
 鬢如霜.
 그대의 외로운 무덤 천 리 밖 먼 곳에 있어
 처량한 심정을 호소할 데 없겠구려.
 서로 만난대도 알아보지 못하리.
 내 얼굴엔 먼지 가득하고
 귀밑머리는 서리같이 되었으니.

夜來幽夢忽還鄉.
 小軒窓
 正梳妝
 相顧無言,
 惟有淚千行.
 料得年年腸斷處,
 明月夜
 短松岡.
 밤 되어 꿈속에서 홀연히 돌아간 고향집.
 작은 집의 창가에서
 그대는 마침 화장을 하고 있었네
 서로 돌아볼 뿐 말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소
 해마다 애간장을 끊었겠구려.
 달 밝은 밤
 키 작은 소나무가 늘어진 그 곳에서.

이 詞는 蘇軾이 꿈에서 10년 전에 죽은 아내를 보고 그녀에 대한 추모의 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전 구를 비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내와 이별한 10년 세월로 인해 이미 늙어버린 자신과 꿈속에서 만난 변함없는 아내의 모습이 대비되며 아쉬움과 비탄의 심정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IV. 悼亡詩의 상징체계

지금까지 우리는 悼亡詩의 성격과 함께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서술 방법상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망시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극한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어느 挽歌詩들보다 서술 상의 유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서술구조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 또한 기실은 비통의 극단적

표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挽歌詩와는 달리 비탄 이외의 진혼이나 칭양 등의 다른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품 감상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도망시에서의 유사한 경향성은 다만 서술 방법상의 유사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즉 많은 작품들이 각각의 세부적인 표현 방법이나 차용된 이미지 및 소재에 있어서까지도 천편일률적인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만 상술한 이유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바, 悼亡詩에 있어 어떠한 관습적이면서도 정형화된 이미지나 표현 방식이 이미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재남은 《연구》에서 한국 애도시의 관습적 표현으로 '죽음의 심상', '亡者의 형상', '幽明의 언어'를 제시하며 이를 한국의 悼亡詩에 적용, 정형화된 상징과 이미지를 찾아내고자 시도한 바 있다.³⁵⁾ 필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悼亡詩에도 이와 같은 정형화된 상징과 이미지가 존재하며, 그것들의 기원이자 최정점에 반약의 <悼亡詩> 3首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의 도망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죽음의 의미와 망자 및 남아 있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망자의 최종 종착지인 저승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도망시들은 상호 유사한 이미지와 소재들을 통해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소재들은 거의가 예외 없이 반약의 도망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즉 역대 중국 시인들은 悼亡詩에 있어서만큼은 반약의 시를 최고의 전범으로 삼았으며,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서술구조와 세부적인 표현 방식 및 이미지와 소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걸쳐 그의 시와 유사한 경계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다음에서 이 세 가지 의미들이 각각 어떠한 소재와 상징의 방식으로 정형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5) 《연구》, p125

1.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앞서 서술방식에서의 ‘(2)遺品을 통한 감정의 촉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만가시들은 주로 자연이나 계절의 원형적 상징을 이용하여 죽음을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悼亡詩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낙엽이나 황혼, 서리, 가을, 저녁 등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들은 죽음이나 노쇠함 혹은 비통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어서, 비단 만가시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시에서도 널리 차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죽음’과 관련하여, 悼亡詩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亡者와의 관계의 단절’로써 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潘岳은 <悼亡詩> 3首에서 ‘휘장과 병풍에서도 당신과 비슷한 모습을 찾을 길 없다(幃屏無髣髴)’, ‘살아생전에 지었던 시문에는 당신의 남은 흔적이 있다(翰墨有余迹)’, ‘즐거 사용하였던 물건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다(遺挂猶在壁)’, ‘긴 대자리 놓인 침상은 험하기만 하구려(長簟竟牀空)’, 비어 있는 당신의 잠자리에는 가벼운 먼지만 쌓이고(牀空委清塵)’ 등의 라는 표현을 통해 아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절을 통한 죽음의 상징은 이 후의 도망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본다.

‘遊塵掩虛座, 孤帳覆空床’ 沈約, <悼往>

(떠다니는 먼지는 텅 빈 자리에 쌓여 있고, 외로운 휘장은 텅 빈 침대를 가리고 있네)

‘衣裳已施行看盡, 針線猶存未忍開’ 元稹, <遣悲懷> 其二

(옷가지들 다 주어버려 남은 것 없고, 이부자리는 여전히건만 펴지를 못하겠네)

‘孤琴在幽匣, 時迸斷絃聲’ 元稹, <夜聞此後并悼亡>

(외로운 거문고는 감 속에 있고, 세월은 흘러 소리는 끊어져 버렸다네)

‘密鎖重關掩綠苔’ 李商隱, <正月崇讓宅>

(문 굳게 걸어 잠겨있고 푸른 이끼 덮여있네),

‘劍外從軍遠, 無家與寄衣’ 李商隱,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劍關 밖으로 군대 따르는 길 먼데, 옷 부쳐 줄 집사람 없다)

‘玉簫失柔膚, 但見口羅碧’ 李商隱 <房中曲>

(대 침상에 누운 부드러운 몸은 간 곳 없고, 다만 펼쳐진 푸른 비단 이불만 보인다)

‘我鬢已多白, 此身寧久全’ 梅堯臣, <悼亡> 其一

(내 귀밑머리 이미 백발이건만, 이 몸만은 편안히 오래도록 살아있네)

이상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가 문화적 상징이나 비유적 이미지, 또는 자연적 이미지 등을 통해 망자와의 단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의 방식들은 심약이나 이상은의 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많은 부분 潘岳 悼亡詩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亡者和 자신에 대한 상징

悼亡詩에서 亡者인 아내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살아 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며 다른 하나는 죽은 이후의 쇠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 남아있는 자신의 존재는 주로 짝을 잃거나 무리에서 벗어난 새와 물고기, 반딧불, 기러기 등과 같은 미물들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潘岳의 시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죽음을 슬퍼할까? 이제 당신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는데(奈何悼淑儷, 儀容永潛翳)’라 하며 아내를 ‘정숙한 짝(淑儷)’이라 표현하며 있는데, 이 외에도 ‘서늘한 바람(涼風)’, 아침 이슬(朝露), ‘낙엽(落葉)’, ‘마른 뿌리(枯藜)’ 등의 표현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즉 생전과 사후의 두 가지 모습에서 망자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에 대해서는 ‘저 숲에 깃들어서는 새처럼, 함께 날아다

니다가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었네(如彼翰林鳥, 雙飛一朝隻), '저 강에 노니는 고기처럼, 항상 더불어 다녔는데 중도에서 헤어졌네(如彼游川魚, 比目中路析)'에서와 같이 짝을 잃은 미물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시에서의 상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報答平生未展眉’ 元稹, <遣悲懷> 其三

(평생토록 얼굴 한 번 펴지 못했던 그대에 보답코자 하네)

‘散關三尺雪, 迴夢舊鴛鴦’ 李商隱,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삼 척이나 쌓인 눈 속의 산관에서 아내의 옛 수놓는 기구 꿈꾼다)

‘忍此連城寶, 沉埋向九泉’ 梅堯臣, <悼亡> 其三

(차마 견딜 수 없네. 和氏의 구슬과도 같은 그대, 묻히어 구천을 향하는 것을)

원진은 생전에 고생했던 모습으로, 이상은은 수를 놓던 모습으로, 매요신은 아름다웠던 외모로써 각각 생전의 아내의 형상을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상징의 예는 다음과 같다.

‘孤琴在幽匣, 時並斷絃聲’ 元稹, <夜閑此後并悼亡>

(외로운 거문고는 갑 속에 있고, 세월은 흘러 소리는 끊어져 버렸다네)

‘今日澗底松, 明日山頭藥’ 李商隱 <房中曲>

(오늘은 계곡 밑의 소나무지만, 내일은 산꼭대기 그루터기 되리니)

‘先知風起月含暈, 尙自露寒花未開’ 李商隱 <正月崇讓宅>

(바람이 일 것을 먼저 알아 달은 무리를 짓고, 이슬 차가워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朝雲暮雨成古墟, 蕭蕭野竹風吹亞’ 孟郊, <悼亡>

(아침 구름과 저녁 비는 옛 터에서 만나건만, 쓸쓸한 들 가 대나무에는 바람만이 불어대네)

‘窗冷孤螢入, 宵長一雁過’ 梅堯臣, <悼亡> 其二

(차가운 창에 외로운 반딧불 날아들고, 기나긴 밤 한 마리 기러기 지나가네)

亡者에 대한 상징에서 사후의 쇠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생전의 화려한 모습을 통한 상징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상징은 많은 시들에서 주로 ‘孤琴’, ‘野竹’, ‘孤螢’, ‘一雁’ 등과 같이 짝을 이루지 못한 사물이나 ‘澗底松’, ‘山頭藥’, ‘月含暈’, ‘花未開’ 등과 같이 왜소하거나 실의한 사물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약이 ‘인간사 모든 일 다함이 없을 수 없으니, 그저 남아 있는 사람만 가슴 아프게 할 뿐(萬事無不盡, 徒令存者傷)’이라 노래한 것처럼 ‘죽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는 바로 살아 남겨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다.

3. 저승세계에 대한 표현

고대 중국인들의 내세나 선향에 대한 관념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될 수 있는데, 첫째는 蓬萊山같은 동해의 이상향이고 둘째는 우주의 근저를 이루는 전체적인 존재구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즉 성리학적 사생관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西王母가 지배하는 신비로운 서방세계이며 넷째는 막연한 개념으로 지하의 관리들이 지배하는 黃泉이다.³⁶⁾ 悼亡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저승에 대한 개념은 이 중 네 번째의 것으로서 죽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혼과 땅으로 스며드는 백의 분리를 믿었던 것에서 기인한 듯하다. 저승에 대한 용어는 ‘九泉’, ‘九原’, ‘地下’, ‘泉下’, ‘黃泉’, ‘重泉’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지하의 어두운 세계를 의미한다는 데서 일치한다.

그렇다면 위의 네 가지 사후개념 중에서 유독 암울한 지하세계의 이미지가 悼亡詩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悼亡詩의 기본정서가 비탄이며 이 비탄은 헤어짐으로 인한 애도자의 아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못한 곳으로 亡者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亡者가 가는 곳이 현

36) 마이클 로이 著, 이성규 譯, 《고대중국인의 생사관》(서울: 지식산업사, 1989), p44

실보다 나은 이상세계라 한다면 비탄의 悼亡詩가 지어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진혼의 悼亡詩도 쓰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悼亡詩에서 등장하는 사후세계는 모두가 암울하고 어두운 지하세계로 묘사되어 애도자의 비탄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으며

이상에서 悼亡詩의 성격과 역대의 작시 현황 및 서술방식상의 특징과 상징체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悼亡詩는 그 성격 상 ‘아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다른 어느 유형의 만가시보다도 그 비탄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작품에 대한 조탁이나 배치 같은 의식적인 고려가 불가능하게 되고 시 전반에 걸쳐 작자의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각각의 도망시들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서술방식이나 시상의 전개방식상의 유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역대 悼亡詩의 작시 현황에 대한 고찰에서는 ‘悼亡’에서 느껴지는 비탄의 강도에 비해 실제 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사상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당 이후 도망시의 창작이 비교적 활발해진 것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인들의 애정관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悼亡詩의 서술구조는 비록 몇몇 도망시에서 비탄의 정서와 더불어 亡者에 대한 稱揚과 鎮魂의 측면들이 함께 나타나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일관된 비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遺品을 매개로 한 감정의 촉발이나 幻影과 幻聽을 통한 悲痛의 극대화가 다른 挽歌詩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悼亡詩의 상징체계는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亡者와 자신에 대한 상징’, ‘저승세계에 대한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많은悼亡詩들이 다만 서술방식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표현 방법이나 이미지 등에 있어서까지도 상호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원인으로 潘岳의 시가 중국悼亡詩의 최고의 전범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시인들이 그의 시의 서술방식에서부터 이미지와 題材 및 象徵 등의 세부적인 표현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부분에 걸쳐 그와 유사한 경계를 담아내고자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悼亡詩의 특징들은 비록 중국의 도망시에 한정된 고찰이기는 하지만, 서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또한 漢詩 창작 경험이 있으며 또한 역대로 많은 도망시가 쓰여져 왔기에, 이에 대한 고찰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 漢詩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韓中悼亡詩에 대한 상호비교 검토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둔다.

< 參考文獻 >

- 劉學鍇·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북경: 중화서국), 1988.
 蘇軾, 《蘇軾詩集》(북경: 중화서국), 1996. 11
 中國詩歌研究會, 《중국역대시가선》 上
 민병수, 《韓國漢詩講解》(서울: 태학사), 1995.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북경: 북경대학출판사), 1990. 10
 마이클 로이 著, 이성규 譯 《고대중국인의 생사관》(서울: 지식산업사), 1989. 12
 이종찬·임기중 외, 《朝鮮時代 漢詩作家論》(서울: 이화문화사), 1996.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研究3》(서울: 태학사), 1995. 12

六臣注, 《文選》(서울: 다운샘)

최재남, 《한국 哀悼詩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8

박지현,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서울대 박사논문, 2004. 8

이지운, 《李商隱 愛情詩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 2

拙稿, 《陸游詩歌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 2

<中文提要>

‘悼亡诗’是挽歌诗的一类型，本来指哀悼朋友或者关系亲密人的诗歌。但潘岳在《悼亡诗》上哀悼自己的妻子以后，主要认为哀悼妻子的诗样式。所以悼亡诗其基本性格上以最切亲人的去世为诗的对象，结局在其表现方式上无不流出无意识性和本能性倾向。

中国悼亡诗有几种固有的叙述方式和象征结构，其主要来源就是潘岳《悼亡诗》。潘岳《悼亡诗》是中国最早的悼亡诗，对后代悼亡诗的内容和形式有了巨大的影响。

在叙述方式上，悼亡诗大有三种特色，一. 悲叹的一贯表出，二. 由遗品触发哀悼感情，三. 用幻影和幻厅写法提高悲痛感情。‘悲叹的一贯表出’就指没有其他情绪—镇魂，称扬等等—只用悲叹情绪到底一贯写下来的。‘由遗品触发哀悼感情’就指悲叹情绪跟一般挽歌诗不一样主要由亡者的遗品触发起来的，如‘帟’，‘屏’，‘衾’，‘床’，‘枕’等等。‘用幻影和幻厅写法’就指设定假想的现实而用之深化不能实现的悲痛感。

在象征结构上，也大有三种象征特色。一. 对去世的象征形象。二. 对亡者和自己的象征形象，三. 对死后世界的象征形象。在表现‘去世’的概念方面，悼亡诗也跟一般挽歌诗一样主要用自然环境和季节变化来表现‘去世’的概念，但在悼亡诗由跟亡者断切状况去世的象征更突出地表现出来。亡者的象征形象有两

种类型,一个是描写在世时漂亮的外貌,一个是描写去世后衰落的外貌.作者让这两种相异的外貌相比来加深悲痛的感情.自己的象徵主要由失倒伴侣或者落伍的动物表现出来.中国人的意识观念中有很多死后世界观,但在悼亡诗其中没光黑暗的地下世界观主要表现出来,因为亡者要去的环境比现实环境越差得远,悲痛感也越能加深.

주제어: 悼亡诗, 挽歌诗, 潘岳, 元稹, 沈约, 李商隐, 梅尧臣, 悲叹, 镇魂, 称扬, 亡者, 死后世界

K C I